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4부 :

3단 변신하라

3단 변신은 자아실현의 단계를 뜻한다

낙타,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

“나는 그대들에게 정신의 세 가지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즉, 어떻게 정신이 낙타가 되며, 낙타가 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사자가 어린아이가 될 것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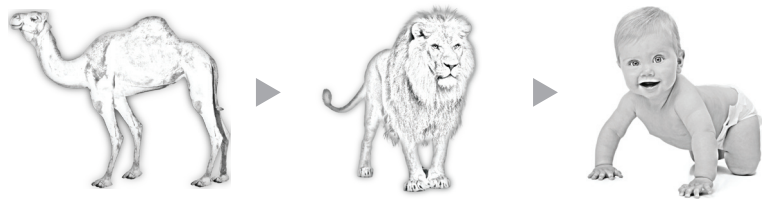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인간이 초인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3단계의 정신변화에 대해 말한다. 니체는 일종의 우화 수법으로 이야기를 펼쳐나가는데 그 첫 단계는 낙타의 단계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 “내게 짐을 실으라”고 말한다. 주인이 주는 대로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가는 낙타처럼 한 인간이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삶이 요구하는 윤리와 도덕, 문화, 세계관 등을 등짐처럼 지고 걸어가는 복종의 시절을 감내해야 한다는 비유다. 실제로 과학자들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의 거의 98% 이상은 우리가 우리의 문화로부터 물려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한다.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의식의 내용 중 개인적인 것이 차지하는 비율이 고작 2%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니체는 그래서 우리 안에 본래적이며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믿는 것은 사실 우리의 할아버지들과 아버지들이 느끼고, 바라고, 생각했던 것의 창백한 반영일 뿐이라고 말하며 부모와 학교, 사회 그리고 종교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로부터 주입된 모든 것, 즉 그런 외부의 존재를 거대한 용이라고 불렀다.

모든 인간은 출가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말의 의미도 이렇게 진정한 나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포근했던 집을 나서야만 함을 뜻한다. 뱀이 허물을 벗듯 짐을 신고 비틀거리며 광야로 나간 낙타는 이제 사자로 변모하게 된다. 이는 의식의 가장 낮은 단계인 낙타에서 인간의 정신이 언젠가는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게 됨을 의미한다.



등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사자의 힘은 그만큼 강해진다. 사자는 혁명가와 같다. 그때 정신은 자유를 원한다. 이 사자가 해야 하는 일은 용을 죽이는 일인데 용의 이름은 '그대의 미래'이다. 이 거대한 용은 '그대는 해야만 한다'라고 불린다. 이 괴물의 비늘이라는 비늘에는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의 미래'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 중에는 4천 년 전에 씌어진 것도 있고 바로 오늘 아침에 씌어진 것도 있다. 낙타, 즉 아이는 '그대의 미래'에 사로잡혀 있는 반면에, 사자, 즉 청년은 이것을 벗어던지기 때문에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용이 완전히 제압되면, 다시 말해서, '그대의 미래'가 완전히 극복되면 사자는 다시 그 사나운 본성을 버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리고 아이로 변모한다. 흡사 굴대를 떠난 바퀴처럼. 이제 이 아이에게는 복종해야 할 법이 없다. 역사적인 필요에서 제정된 법률도 없고 지역 사회를 위해 제정된 법률도 없다. 들쭉처럼, 그저 충동에 따라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순진무구한 어린아이처럼 신성한 긍정의 길을 가는 것이다. 세계적인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저서 《신화의 힘》에서 니체가 이야기한 3단 변신의 과정을 이와 같이 해석한다.

비슷한 예로 만 원짜리 지폐의 세종대왕을 그린 화가로도 유명한 한국 화단의 거목 윤보 김기창 화백은 진정한 바보, 즉 어린아이가 돼야 예술의 경지에 오를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실제로 그는 말년의 작품일수록 더욱 어린아이가 그림을 그리듯 그렸다. 긍정도 부정도 없이 모든 것들을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어린아이에게 삶이 놀이며 놀이가 곧 삶인 것처럼 유아적인 느낌이 물신 풍기는 김기창 화백의 대표작 <바보산수>는 그래서 소는 소대로, 강은 강대로, 바보 같은 순수함으로 진정한 예술을 표현했다.

내 안의 데미안 찾기

예수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다시 순진무구한 의식 상태를 회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를 통해 보여주는 3단 변신의 목적이자 핵심이다. 헤르만 헤세도 젊은 시절 니체에 심취했던 작가로 그의 대표작 《데미안》은 니체의 3단 변신에 맞먹는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인간형성의 3단계’를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려 풀어낸 역작이다.

《데미안》은 무척이나 신비로운 분위기의 작품인데 그 주제가 자아실현의 문제라는 것만은 소설을 읽어본 누구나 공감하는 사실이다.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열 살 때부터 스무 살 정도까지 겪는 내적인 성장이 그 주된 내용으로 싱클레어가 사춘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 사회에 발을 내딛기까지의 이야기를 일인칭으로 서술하고 있다. 외적인 사건보다는 내적인 변화에 그 초점을 맞추으로써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세상의 이런저런 일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가 어떤 과정을 통해 자아를 인식하고, 구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준다.

니체와 마찬가지로 헤세는 자기 발전의 과정을 ‘인간형성의 3단계’로 보았다. 그 첫 번째인 1단계는 어린 시절의 철없고 무책임한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도덕이나 종교를 인식하고 죄를 경험하는 단계다. 이는 주인공 싱클레어가 열 살 되던 해 라틴어 학교를 다니면서 체험하게 되는 어둠의 경험에서 시작된다. “두 세계”라는 소제목이 붙어있는 1장에서 헤세는 싱클레어가 환히 드러난 밝은 세계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의 따뜻한 품 안과 부모의 영향권을 벗어난 어둠의 세계, 즉 폭력과 살인, 술주정과 해피망측한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 사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빛이 있는 곳에 언제나 그림자가 존재하기 마련으로 인간은 빛과 어둠의 영향을 동시에 받음을 알려주는 비유인 것이다.

이 어둠의 존재는 싱클레어가 만나게 된 크로머라는 불량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마치 에텐이라는 실낙원에서 사과를 먹는 죄를 짓게 된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처럼 영겁결에 사과를 훔쳤노라는 거짓말을 하는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바람에 크로머의 공갈 협박에 말려들고만 싱클레어는 밝음의 세계에서 실탁해 어둠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는다. 크로머는 모든 인간이 유년기의 순진무구함에서 벗어나 사춘기로 접어드는 문턱에서 만나게 되는 ‘내면의 억제된 충동’을 표상화한 인물이다. 엄연히 실재하지만 직시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휘말려들게 마련인 이 영역으로 헤세는 어린 싱클레어를 들여보낸 것이다.

싱클레어는 크로머의 괴롭힘에 지쳐가지만 아무런 저항을 하지 못하고 점점 더 깊숙이 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크로머는 싱클레어의 누나를 데려오라며 위협을 가하고 싱클레어는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한 채 번민한다. 바로 그때 싱클레어의 삶에 데미안이란 이름을 가진 기묘한 소년이 나타난다. 싱클레어보다 그저 몇 살 위인데도 현명하고 밝은 이 애늬은이 같은 소년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며 어른 같지도 아이 같지도 않고 늙지도 젊지도 않으며 어딘지 시간을 벗어난 듯한 신비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실존 인물 같지 않은 데미안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그 이름에서도 드러나는데 앞서 살펴본 소크라테스의 다이몬, 즉 내면에서 울려나오는 마음의 소리이자 선악을 넘어서 우리 내면의 신성을 표상화한 인물이다. 실제로 헤세는 지인에게 보내는 한 편지에서 데미안이 원래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이자 하나의 진리 혹은 하나의 교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체현된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소설 속에서 데미안은 과부의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데미안의 아버지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마치 전설이나 신화 속에 등장하는 성인이나 영웅들이 대개 과부의 아들인 것처럼 데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미안도 그러한 것이다.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과부의 아들’이라는 비유가 종종 ‘신의 아들’이라는 비유로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신화가 이야기하는 바에 따르면 인간의 영혼은 원래 신으로부터 발출된 신성의 불꽃이므로 우리 모두는 사실상 ‘신의 아들’들이고 이는 다시 데미안과 같은 우리 내면에 거하는 참된 자아이자 신성이며 내면의 스승을 뜻하는 것이다. 마치 니체가 자라투스트라의 목소리를 빌어 “만일 신들이 존재한다면, 내가 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 참고 견디어 낼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과 같은 이치다. 우리가 곧 신이다. 신을 밖에서 찾지 말라는 이야기다.

눈빛만으로도 싱클레어의 내면의 방향을 모두 꿰뚫어보는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불안을 가질 필요가 없어. 만약 누군



헤르만 헤세

“데미안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원리이자 하나의 진리입니다.”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가를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에게 자기를 지배할 힘을 넘겨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데미안은 무슨 수를 썼는지 크로머의 기를 완전히 꺾어 놓았고 덕분에 싱클레어는 원래의 밝은 세계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떤 일인지 부모님으로 표상되는 밝은 세계는 ‘잃어버린 낙원’의 비유처럼 다시는 예전과 같이 순진무구한 채로 노닐 수만은 없는 ‘과거’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싱클레어는 두 세계의 존재를 확실히 알아버리고 만 것이다.

상급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고향을 떠나게 된 싱클레어는 데미안과도 자연스럽게 이별을 하게 되고 김나지움 기숙사에서 사춘기를 보내며 알 수 없는 방향을 하게 된다. 불량학생들과 어울려 말썽을 부리고 다니며 학교에서 퇴학을 고려할 정도의 문제아가 된 것이다. 여기서 헤세는 싱클레어를 통해 인간형성의 2단계인 죄를 짓고 깊은 절망감 가운데서 방향하는 상태를 보여준다. 싱클레어를 괴롭히던 것 중 하나가 성적인 문제로 성에 대한 감정은 그를 끝없는 어둠 속으로 빠지게 만든다. 어린 시절엔 외부의 어둠인 크로머가 그를 괴롭혔다면 이제는 내부의 어둠인 성적 충동이 싱클레어의 방향을 이끌고 있는 셈이었다.

이런 어둠의 시기에 공원을 산책하던 중 싱클레어는 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 그녀에게서 성적 충동을 압도해 버리는 신비한 존경과 사모의 마음을 느끼게 된다. 그녀에게 한 마디 말도 건네 본 적이 없지만 깊은 영향을 받은 싱클레어는 그녀를 ‘베아트리체’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연모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이제까지의 방탕한 생활을 청산하게 된다. 사랑과 흥미를 바칠만한 대상을 찾은 것이다. 싱클레어의 이러한 변화는 서양에서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는 여성과 남성, 동양에서는 음과 양으로 상징되는 우리 내면의 두 가지 원리를 나타낸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남성인 싱클레어가 자신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적 원리에 눈을 떴다고 볼 수 있다. 동양의 현자들이 깨달음에 대해 설명할 때 음양의 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내면의 음양인 여성적 원리와 남성적 원리가 조화롭게 성숙해야만 자아 실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심리학자 칼 융이 우리의 무의식 안에 숨겨진 원형적인 층으로 ‘아니마/아니무스’를 이야기한 것과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마는 남성의 내면 깊이 감추어진 여성적 요소인 반면 아니무스는 여성의 내면에 감추어진 남성적 요소를 일컫는다. 인간은 그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결국엔 음양의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헤세는 이를 베아트릭체에 반한 싱클레어가 어느 날 그녀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리다 완성된 그림을 보고 깨달음을 얻는 장면으로 나타내고 있다.

“완성된 그림 앞에 앉았을 때 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반은 남자, 반은 여자 같았고, 나이도 없고, 일종의 신의 모습처럼 보였다.”

싱클레어는 그 그림이 누군가를 많이 닮았다고 어렵פות이 생각하지만 확실히 알 수는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것이 데미안의 얼굴임을 깨닫고 놀라지만 이내 그 얼굴이 베아트릭체도 데미안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은 나의 내면, 나의 운명, 나의 데몬이었다.”

남의 속을 거울같이 읽어내고 서두름 없이 떨쳐감치 떨어져 있으면서도 결정적인 단계마다 자극하고 일깨우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데미안의 목소리는 결국에 자기 자신이 되는 법을 찾아 헤매는 모든 인간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이 만나게 되는 스스로의 목소리이자 내면의 신성이었던 것이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베아트릭체는 단테의 〈신곡〉에 등장하는 단테의 연인이다. 〈신곡〉에서 단테는 베아트릭체의 영혼이 이끄는대로 천계를 여행하고 신의 진리를 엿보는데 이 또한 ‘단테 - 베아트릭체’ 구도를 통해 한 인간 안의 남성 원리와 여성 원리를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마침내 싱클레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서 방학기간을 이용해 데미안의 집을 찾아가게 된다. 그렇게 아주 오랜만에 데미안과 반가운 재회를 하고 데미안의 어머니 에바 부인을 만나 영적인 성장을 이뤄 나간다. 《데미안》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신비로워지는 대목은 바로 여기서 부터다. 헤세는 인간 내부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에바 부인이란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방출된 신성의 불꽃이자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에바 부인으로 상징되는 신성과의 합일을 갈망

“베아트릭체는
우리 안의
여성원리를 뜻하죠.”



단테

하기 마련이다. 동서양의 현자들이 자주 이야기하는 ‘우주와의 합일’이나 ‘물아일체’와 같은 표현은 그렇게 우리가 신성의 한 부분이자 그 자체임을 깨닫는다는 것을 뜻한다. 헤세는 이를 《데미안》이라는 소설로 표현한 것이다. 데미안과 에바 부인의 관계를 단순한 모자지간을 넘어선 애정 관계처럼 묘사하며 심지어 데미안의 친구인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에게 정신적 사랑과 함께 관능적인 사랑을 느껴 에바 부인과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열망하는 장면의 묘사는 그 내용만 놓고 보면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지만 독자들로 하여금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묘하게 신비롭고 아름다워서 그 뜻을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벽찬 감동을 주는데, 헤세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채지 못한다 해도 뭔지 모를 신비한 울림을 주는 이야기로 남는다. 고대로부터 전해내려온 신화와 민담들이 그러하듯 헤세는 다양한 상징과 비유가 곁들여진 이 기묘한 이야기를 통해 인간형성의 마지막 3단계인 절망감에서 벗어나 더 높은 신념의 경지에 이르는 과정을 그려낸 것이다.

누구나 그 길을 걸어간다

“새가 알에서 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곧 세계이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 그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데미안》하면 떠오르는 이 유명한 구절이 뜻하는 것도 3단계의 변화 과정을 완성한, 즉 자아실현을 이뤄낸 인간의 모습이다. 인간은 자기 삶

의 완성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존재다. 진짜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나가는 것이 이제껏 당연하게 여겨왔던 삶과는 너무나 달라 마치 한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을지라도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리하여 주어진 운명을 온 힘을 다해 끌어안고 살아내는 방법밖에는 없음을 헤세는 《데미안》에서 아브락사스라는 그의 문학을 대표하는 키워드이자 상징을 통해 보여준다.

고대 이집트 출신의 신인 아브락사스는 그 독특한 이름처럼 기존의 신과 다르게 악마적 성질이 포함되어 있다. 기존 종교의 신들이 천사와 악마, 선과 악 그리고 저급한 욕망과 성스런 영혼의 이분법을 고수하는 것과 달리 아브락사스 신은 일원론을 추구한다. 달걀과 닭은 하나라는 것이다. 누가 먼저냐가 아니다. 달걀이 그 알을 깨고 나와 닭이 되듯이 욕망이 자라서 성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단지 시간차일 뿐이며 오로지 성숙의 문제일 뿐이다. 알을 깨고 나오는 새는 알을 얻고 그런 알이 성숙이다. 알은 새의 입장에서선 마치 전 세계처럼 보이며 목숨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새로 태어나려는 자는 반드시 그 세계를 무너뜨려야 한다. 죽음과 부활의 모티브는 반복된다. 이분법의 그 세계를 깨버렸을 때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그 신의 이름이 아브락사스다. 선과 악이 한 몸이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명쾌해진다. 아브락사스는 균형의 신이기 때문에 선과 악의 균형을 맞추면 떠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태초부터 악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는 없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듯 선과 악이 한 몸이다. 인간 또한 그런 존재이다. 어둠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 어둠의 정체를 알면 된다.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는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데미안》에서 싱클레어가 맞닥뜨린 어둠의 본질은 실상 자기 내면의 무의식의 세계였기에 그 안에서 운명적으로 조우하게 된 데미안과 에바 부인 그리고 아브락사스로 표상되는 신의 모습은 바로 그 자신의 영혼이었던 셈이다. 나의 세계라는 것이 결국 나의 무의식의 반영에 불과함을 깨달은 인간에게 세계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인간이 주체가 되어 창조적으로 세계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 변환이 세계가 먼저 변함으로써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니체의 말마따나 3단 변신이라는 변환의 과정을 거쳐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3단계론은 서양에서 '신비주의의 길'이라고 알려진 깨달음의 여정과 비슷한 것이다. 신비주의자들이 공통으로 걷게 되는 원형적인 길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첫째는 자의식으로서 한 번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자신을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왜 이런가'라는 화두를 붙잡고 자신의 모자란 부분을 깨달아간다. 그 다음에는 자기의 모자람을 없애려는 정화의 길로 나아간다. 이기적인 자기를 없애고 사랑을 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이다. 그런 연후에 이른바 빛을 보는 조명의 단계로 넘어간다. 이를 통해 내면적 통찰과 직관이 가능해지는 깨침을 얻는다고 한다. 마지막에 가서는 궁극적 실재와 합일이 일어난다. 온 세계와의 합일, 모든 만물과의 합일이 실현되는 것이다. 나도 없고 남도 없는 주객이 일치하는 주객을 넘어서는 단계이다.

동양에서도 이와 유사한 관점을 찾아볼 수 있다. 선불교에서 십우도

《니체 운명수업》 샘플원고

혹은 십우도라고 하는 것, 즉 소를 찾는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여기서 소는 깨달음을 상징한다. 소를 찾으러 집을 떠나 소를 찾은 후에 결국 소도 나도 없는 근원의 상태를 체험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저자거리로 간다. 도와주려는 손을 가지고 이웃에 봉사하기 위해서다. 앞서 살펴본 '영웅의 여정'이 마치 옷만 갈아입은 것처럼 다양한 문화권과 작가들에게서 그리고 니체의 3단 변신론을 통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